

God Is Everywhere All the Time:
Thursday Morning Email Devotion for July 27, 2023

Aloha MPC 'Ohana,

It's July 27 and time for another Thursday Morning Email Devotion.

I recently ran across the true story of a ship called the *S.S. Warrimoo*, which once carried passengers and freight back and forth between Sydney, Australia, and Vancouver, Canada.

It seems that on the evening of December 30, 1899, the *S.S. Warrimoo* was crossing the Pacific bound for Sydney. By chance, the ship was just a few nautical miles from the intersection of the Equator and the International Date Line.

Seeing a unique opportunity, Captain John Phillips ordered his crew to steer the ship toward the meeting point of both lines. Five experienced navigators checked the position of the sun and, after sunset, the stars. The ship's position was checked every three hours. Helped by smooth seas and open skies, the *S.S. Warrimoo* at the stroke of midnight found itself right across the aforementioned intersection, its bow pointing south and its stern facing north.

This had some interesting consequences. The forward part of the ship was in the Southern Hemisphere, where it was Summer, and already January 1, 1900. The aft part of the ship was in the Northern Hemisphere, where it was Winter, and still December 31, 1899.

All of which meant that the same ship was for a brief moment:

- in two different days (on its forward half, it was already Monday, while on its aft part, it was still Sunday);
- in two different months (forward in January, aft in December);
- in two different seasons (Summer and Winter);
- in two different years (1900 and 1899);
- in two different centuries (the 20th and the 19th); and
- in all four hemispheres at once (the Southern and the Northern on either side of the Equator, and the Eastern and Western on either side of the 180th meridian).

I don't know about you, but that seems like a pretty neat trick to me. But it also made me think of something more substantive. Because the *S.S. Warrimoo* being in more than one place and time at once reminded me of something the Bible tells us about God.

Scripture says that God is *omnipresent*. That means that God isn't just in two or four different places at once. It means that God is *everywhere* all the time.

The ability to be everywhere all the time (ie. omnipresent) is kind of mind-boggling (to me, anyway). But true as that is, the reason why God's omnipresence is important is because it brings us some wonderful promises. For example, if God is everywhere, then we can know that He is never far away and can come quickly

to our aid. If He is present everywhere, then we can know that He is acting in each and every place according to His holy will for our good and to achieve His purposes. And that is true even when God seems to be far away. Which He never actually is – because of His omnipresence.

Me ke aloha,
Pastor Ron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나 계시다:
2023년 7월 28일 목요일 오전 이메일 묵상

알로하 MPC '오하나,

7월 28일 또 다른 목요일 아침 이메일 묵상 시간입니다.

나는 최근에 _S.S라는 배의 실화를 접했습니다.
한때 호주 시드니와 캐나다 밴쿠버 사이를 오가며 승객과 화물을 운송했던 Warrimoo_.

1899년 12월 30일 저녁에 _S.S.
Warrimoo_는 시드니행 태평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 배는 적도와 국제 날짜 변경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불과 몇 해리 거리에 있었습니다.

특별한 기회를 본 John Phillips 선장은 선원들에게 두 선이 만나는 지점을 향해 배를 조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다섯 명의 항해사가 태양의 위치를 확인하고 해가 진 후에는 별을 확인했습니다.
배의 위치는 매 3시간마다 확인되었습니다.

잔잔한 바다와 열린 하늘의 도움을 받아 _S.S.

Warrimoo_는 자정이 되었을 때 선수가 남쪽을 향하고 선미가 북쪽을 향하고 있는 앞서 언급한 교차로 바로 건너편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배의 앞부분은 남반구에 있었는데 그곳은 이미 1900년 1월 1일 여름이었습니다.

배의 선미 부분은 북반구에 있었는데 그곳은 겨울이었고 여전히 1899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배가 잠시 동안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ÿ 서로 다른 두 날에 (앞쪽 절반은 이미 월요일이었고 뒤쪽 부분은 여전히 일요일이었습니다);

ÿ 서로 다른 두 달(1월 전방, 12월 후방);

ÿ 서로 다른 두 계절(여름과 겨울);

ÿ 서로 다른 두 해(1900년과 1899년);

ÿ 서로 다른 두 세기(20세기와 19세기); 그리고

ÿ_4개 반구 모두_에서 동시에(적도 양쪽의 남반구와 북반구, 180도 자오선 양쪽의 동서반구).

나는 당신에 대해 모르지만 그것은 나에게 꽤 깔끔한 속임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더 실질적인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_S.S.

Warrimoo_ 한 번에 여러 장소와 시간에 있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_편재하신_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동시에 두세 곳의 다른 장소에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항상 _어디에나_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능력(즉, 편재)은 일종의 놀라운 일입니다(어쨌든 나에게서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편재하심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이 결코 멀리 계시지 않으며 신속하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에나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의 거룩한 뜻에 따라 모든 곳에서 행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 그분의 편재하심 때문입니다.

알로하,

론 목사